



2005년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주관했던 감염인 단체 연합 워크숍에 이어 2006년 10월 같은 행사에 관한 협조공분을 받았을 때, 문득 2005년도에 펼쳐졌던 연합 행사가 떠올랐다.

작년의 경우 감염인들이 주관하거나 협조한 것이 아닌 참석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정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각 단체와 감염인들의 인내와 화합의 장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였다.

현재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나 방향성을 보았을 때 워크숍을 통해 연합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리는 쪽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과 같이 민간단체 주관 하에 교육목적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감염인 단체나 감염인이 보기에는 미효율적이고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다.

2006년 감염인단체 연합행사가 11월 1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홍대 입구 레스보스에서 열렸다. 작년의

경우로 볼 때 1회성 행사로 그치기보다는 행사를 통해 단체의 연합과 아울러 감염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행사를 기획하였다.

그동안 감염인들에게 비감염인들이 다가오는 것이 익숙했었다면 이번 행사의 콘셉트는 감염인들이 비감염인들과 동료감염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손을 내밀며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후원의 밤 형식과 파티의 형식을 겸해 감염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감염인들을 기존 행사와는 다르게 참석자만이 아닌 행사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데에 기획의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편히 앉아서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를 물색 하였으며 외부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초대공연은 매직쇼와 초대가수, 연주 팀만 섭외를 하였고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에 감염인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을 감염인을 위한 지원으로 편성하였다.

드디어 행사 당일, 짧은 준비기간과 홍보부족으로 인한 초조하고 불안하였지만 속속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는 동료감염인들과 행사장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들 받을 때마다 설레며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오르크, 첼코, 마이올린의 연주를 시작으로 40분이나 늦게 행사가 시작되었지만 행사장의 많은 관객들은 나로 하여금 자부심과 더불어 행사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간단한 식소스 소개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을 기획한 각 단체대표 및 1년간의 단체별사업의 소개를 시작으로 가장 의미 있는 '레드리본상' 수여식이 진행 되었다. 어찌 보면 레드리본상 수여식은 수상자보다 전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고마

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비덕을 배우기에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어서 식사와 함께 시작된 매직 쇼는 환상적인 미술공연을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과 함께 공연자의 미모 또한 관객들의 감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행자와 관객 구분 없이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고 특히 평소의 가창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모 가수와 특징 유희입소에 가지 않으면 결코 감상할 수 없는 '어우동쇼', '불쇼'는 흥미여부를 떠나서 감염인을 출연자로 참어시켰다는 점에서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였다는 후문을 들었을 때는 내심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10시까지 계획되었던 행사는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11시가 넘어서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막을 내렸으며 사은품으로 지급된 무선주전자는 겨울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

다만 음식과 마이크 음향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과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하여 홍보가 부족하여 더 많은 감염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이번 행사는 감염인 자조모임단체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또한 각 단체의 활동부분에 대한 이해와 협조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많은 감염인들의 참여로 인하여 성신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 서로가 마음을 열고 노력하고 이해하게 된, 감염인에 의한 감염인을 위한 행사였다. 2006년 연합 행사를 기점으로 매년 한국감염인의 날(가칭)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다짐한다.